한화그룹의 핵심가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본인이 해당 핵심가치를 보유한 인재임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 말씀해주십시오.

\*해당 채용사이트 자기소개서에서 줄바꿈(엔터)을 할 경우 2글자로 계산되어 자소설닷컴의 글자수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저에게 항상 설레는 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수님이 맡아오셨던 학술제 MC를 학생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동문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MC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부담감에 누구도 섣불리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MC를 맡아본 적이 없어 학술제를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에 지원하였습니다.

MC를 맡아오셨던 교수님께 찾아가서 작년 학술제 대본을 참고하여 진행표를 제작했습니다. 무대의 동선을 확인하며 예행연습을 했고, 녹화하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준비하여 경품추천, 문자이벤트와 같은 코너도 준비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한 덕에 학술제 당일에 성공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MC를 본 공로를 인정받아 동문 장학생에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MC라는 독특한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한화시스템에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달성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를 한가지씩 말씀해주십시오. 각 경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통해 얻은 것을 함께 기술해주십시오.

조별과제를 할 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조별 뉴스 제작을 할 때였습니다. 첫 실습이었기에 많이 서툴렀고, 일정이 자주 지연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을 격려해야 했지만, 불안했던 저는 조원들이 해야 할 일을 달라고 하여 제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3~4명의 작업량을 혼자 하려다 보니 시간에 쫓겨 작업했습니다. 허겁지겁 만든 뉴스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여럿이 협동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100만 뷰를 달성했었습니다.

팀을 결성해 '세대 차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렸습니다. 공동 작업이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다툼도 잦았습니다. '다양한 취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번 실패를 겪었던 저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선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 다양한 피드백을 내되, 각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 분야의 담당자가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PD는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피력했고, 편집자들은 맡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제작해나갔습니다. 팀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각자 분야에 집중하니 팀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유튜브에서 영상 조회 수 100만, 페이지 구독 3,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팀원들이 맡은 분야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를 준다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팀원들과 협력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던 것처럼, 한화시스템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쌓고 협력하여 함께 따뜻한 IT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SMART&CREATIVE

한화시스템 ICT부문은 "SMART&CREATIVE""라는 비전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IT업계에서 "SMART&CREATIVE"가 왜 필요한지 정의하고,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SMART&CREATIVE" 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ICT 시장은 5G의 도입으로 기존의 여러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필수적입니다.

학생회 경험을 통해 '창의성은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학생회 총무를 맡았을 때, 회식 도중 학우가 넘어지면서 오른손 약지 손가락 신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100만 원을 초과했지만, 학과 주관 행사가 아니었고, 특정 1인을 위해 거액의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관례나 암묵적인 규칙을 깨기로 했습니다. 기준 없는 모호한 규정보다는 학생회비의 주인인 학우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학생총회를 열어 학우의 상황과 취지를 설명한 후 투표를 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교수님, 참관을 원하는 모든 학우와 같이 개표했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과반수의 학우가 찬성해줘서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좋은 선례로 남아 거금을 사용해야 할 때 학생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니 사고를 넓게 확장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좋은 선례를 남긴 것처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꾸준히 사고하는 습관을 통해 한화시스템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습니다.